

레미콘 산업동향

1995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1. 1995년 상반기 건설경제 동향

1) 국내 경제 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국내 총생산(GNP)' 자료에 따르면, 금년 2/4분기중의 국내 총생산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높은 신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9.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 9.9%에 이어 2/4분기에도 9.6%를 기록, 상반기중 국내 총생산은 9.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업은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토목건설이 공사집행의 지연으로 부진했으나 공장사무실

을 중심으로 한 비주거용 건물과 표준건축비의 조기 인상,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물 신축이 활기를 띠어 前 분기(7.8%)에 이어 8.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 건축허가면적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금년 1~7월 중 건축허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전국에서 허가된 총건축면적은 7천 287만 m²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천 402만m²에 비해 16.4%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건설물량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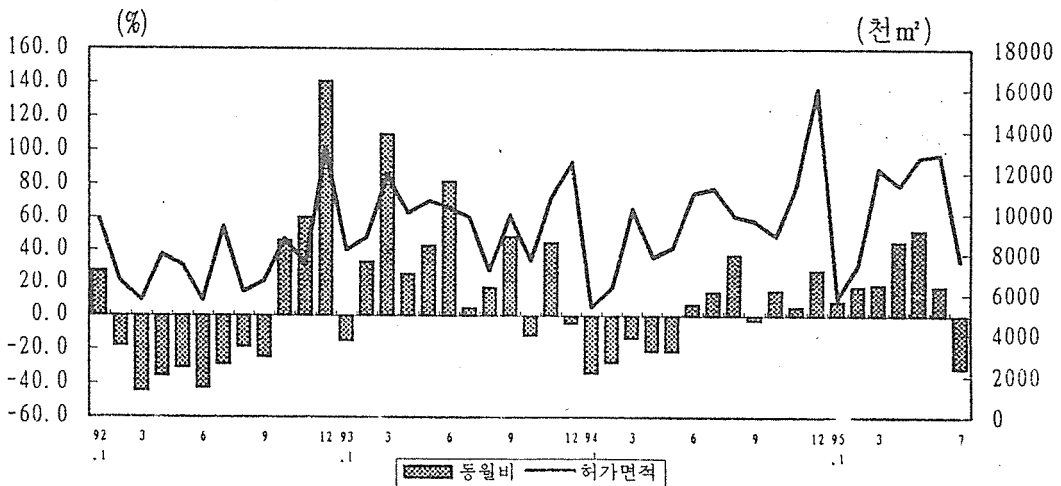


그림1. 건축허가면적의 추이(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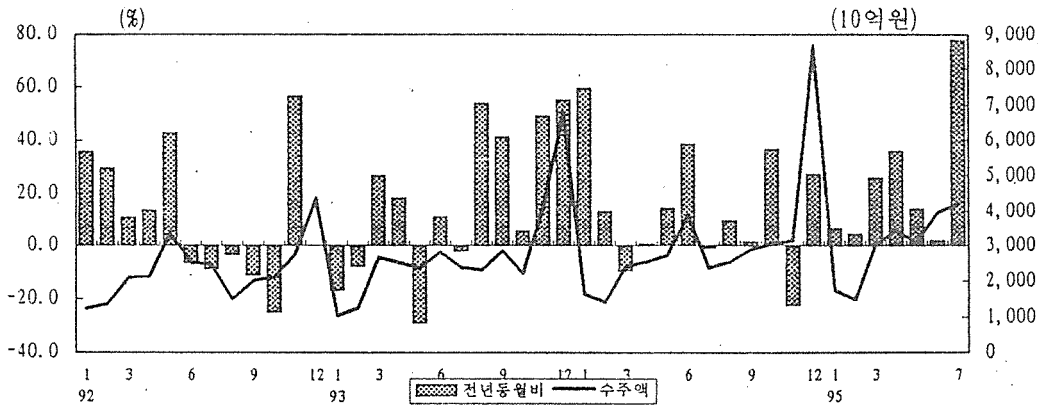


그림2. 국내 건설수주액 동향(자료: 통계청)

가에다 경기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용도별로 보면 전체 건축면적규모를 주도하고 있는 주거용의 경우 7월말까지 모두 3천 694만 m²가 허가됐다. 이는 지난 해 同期실적인 3천 26만m²에 비해 22.1%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처럼 주거용 건축물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가 많이 개발·공급됨에 따라 이 일대에서의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공장, 창고 등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경기상승에 따른 활발한 시설투자에 힘입어 지난 1994년 상반기의 758만m² 보다 8.6%가 신장한 823만m²에 달했으며, 상업용 역시 전년 동기의 1천 618만m²에 비해 12.6% 증가한 1천 822만m²가 허가되었다.

3) 건설공사수주액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년 1~7월 중의 건설공사수주액을 살펴보면 화학·철강·기계제조업에서의 건설공사 계약이 증가하였고, 업무용 빌딩, 상가 등 상업용 건축수주가 대폭 늘어나 지난 1~7월 동안 20조 9천 223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23.5%가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경기가 전반적인 경기활황과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경기확장세 지속에 의한 건축필요성으로 공공발주가 지연돼 8.8%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민간부문은 사무실, 공장, 상가 등의 비거주용 건축이 활기를 보여 31.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 1995년 상반기 레미콘수급동향

1995년 상반기중 전국 레미콘출하량은 5천 478만m³를 기록하여 지난 해 동기(4천936만 m³)보다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는 지난 1989년 이전의 연간 수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써 레미콘산업의 급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3월 이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6월까지 매월 1천만m³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높은 수요를 나타내었으며, 수요경향이 안정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기간에 주택부문에서의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유발기간이 비교적 긴 상업용이나 공업용부문에서의 수요증진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수요별로는 민수부문이 4천559만m³

로서 전년 동기(4천13만³)대비 13.6%가 증가한 반면, 관수부문은 919만³를 출하하는데 그쳐 전년동기(923만³)에 비해 0.5%가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관수출하량은 지하철건설공사가 활발한 대구 지역과 정부주도의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서울·경인지역에서는 13.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에서의 발주형태가 지속적으로 턴키형태로 변환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하반기로 발주물량이 다소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1995년 상반기중의 출하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지역에서의 수요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지방의 출하증가율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서울·경인지역에서는 금년 상반기중 105개사 141개 공장에서 2천57만³를 출하하였으나, 전년(1천978만³)대비 증가율은 4%에 그쳤다. 서울·경인지역의 출하증가율이 둔화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관수물량의 격감에 그 원인이 있는데 1~6월 중 매월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면 민수부문은 수원지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건설과 일산, 포천지역의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진되어 전년동기대비 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이 26.4%, 대구·경북지역(대구 16.8%, 경북 21.2%)의 출하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동지역에서 대불공업단지 등 대형 토목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1995년 하반기 및 1996년 건설경제 전망

1) 정부정책기조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최근의 경기동향과 하

표1. 1995년 상반기 지역별 레미콘출하실적
(단위 : 만³, %)

지 역	수요별	레미콘출하실적		
		1995	1994	증감률
서울, 경인	민 수	17,872,861	16,650,466	7.3
	관 수	2,701,700	3,131,590	-13.7
	합 계	20,574,561	19,782,056	4.0
강 원	민 수	1,757,327	1,630,519	7.8
	관 수	571,782	620,452	-7.8
	합 계	2,329,109	2,250,971	3.5
충 북	민 수	2,135,196	1,982,223	7.7
	관 수	372,686	326,565	14.1
	합 계	2,507,882	2,308,788	8.6
대전, 충남	민 수	4,153,949	3,550,105	17.0
	관 수	713,824	788,470	-9.5
	합 계	4,867,773	4,338,575	12.2
전 북	민 수	2,065,955	1,696,134	21.8
	관 수	518,955	500,444	3.7
	합 계	2,584,910	2,196,578	17.7
광주, 전남	민 수	3,959,775	3,173,336	24.8
	관 수	1,004,485	755,407	33.0
	합 계	4,964,260	3,928,743	26.4
대 구	민 수	1,674,499	1,432,276	16.9
	관 수	392,628	336,894	16.5
	합 계	2,067,127	1,769,170	16.8
경 북	민 수	4,042,845	3,235,780	24.9
	관 수	1,150,607	1,049,449	9.6
	합 계	5,193,452	4,285,229	21.2
부 산	민 수	1,730,714	1,449,641	19.4
	관 수	260,368	319,068	-18.4
	합 계	1,991,082	1,768,709	12.6
경 남	민 수	5,689,050	4,844,487	17.4
	관 수	1,265,868	1,217,767	3.9
	합 계	6,954,918	6,062,254	14.7
제 주	민 수	506,282	483,441	4.7
	관 수	236,543	187,079	26.4
	합 계	742,825	670,520	10.8
전국총계	민 수	45,588,453	40,128,408	13.6
	관 수	9,189,446	9,233,185	-0.5
	합 계	54,777,899	49,361,593	11.0

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상승국면을 최대한 장기화하면서 내년 이후의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경상수지 적자 폭을 축소해 나가기 위하여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총 수요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안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안정기조가 지속되도록 총 통화를 당초 목표범위(12~16%)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토지전산망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면서 이달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임대공단조성과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이와함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토지, 환경, 금융 등 11개 중점 대상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법령정비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2) 건설투자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분기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최근의 경기상승국면은 올 3/4분기나 4/4분기중 정점에 도달한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정점 이후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은 경기확장세가 지속돼 9%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1995년의 국내 건설투자는 지난해 4.6% 증가한 건설투자는 올해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비주거용 건설 등의 회복으로 작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7.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내경제가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7~12월) 건설경기는 총 계약규모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보다 5.6% 정도의 실질성장에도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즉, 하반기의 건설투자 증가율을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이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는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상반기 건설투자 회복세를 이끌었던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공장건물 신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다소 낮은 7.7%,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은 8.2%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올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의 건설공사수주액은 총 35조 1천 890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13.6%가 증가할 것이나 상반기중 수주액증가율 16.7%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주기관별로는 민간이 상반기의 비주거용 건축의 호조세가 둔화되고, 민간부문에서의 설비투자의 초기단계가 끝나감에 따라 공장부지조성 등이 줄어들어 19조6천790억원으로 상반기의 계약증가세 16.0%보다 낮은 13.8% 증가에 머물 것이며, 공공부문의 증가율도 상반기에 늦춰졌던 토목부문의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13.3% 증가에 그친 15조5천1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중별로는 토목부문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늦어지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의 설비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9.5%의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 1조5천980억원의 수주가 예상되며, 건축부문 역시 상반기중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던 상가, 오피스빌딩같은 비주거용 건축공사물량이 23조5천910억원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15.7%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은 하반기 수주액전망에 토대로 올 한 해동안의 연간수주 규모는 지난해(52조607억원·추정)보다 14.8% 증가한 59조7천820억원에 이르러 60조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중 국내 건설경기가 이처럼 부분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199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성장률은 5.6%증가

표2. 국내 건설수주 전망

(단위: 억원, %)

	94년도 (P)		95년도 (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증가율	하반기	증가율
합 계	211,817	309,790	245,930	16.7	351,890	13.6
토 목	66,485	105,939	68,330	2.8	115,980	9.5
건축	144,332	203,851	177,600	23.0	235,910	15.7
공 공	68,978	136,866	81,360	18.0	155,100	13.3
토 목	48,883	91,830	56,780	16.2	99,230	8.1
건축	20,095	45,036	24,580	22.3	55,870	24.1
민 간	141,839	172,924	164,570	16.0	196,790	13.8
토 목	17,602	14,109	11,550	34.4	16,750	18.7
건축	124,237	153,020	153,020	23.2	180,040	13.4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 94년 실적은 94년 건설공사실적 신고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월별 수주실적과는 차이가 있음.

(1994년 하반기 대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총량지표상의 계약액 증가세와는 달리 건설업체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업체수 급증에 따른 과당경쟁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나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도 국내 경제전망을 분석한 '96년도 경영계획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경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확장국면에서 벗어나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설비투자 감소와 엔저현상 등 경기둔화 요인으로 30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 경기활황세가 한풀 꺾이면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 예상치인 9.1%보다 다소 둔화된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기업의 신·증설투자가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17.2% 수준이었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내년에는 7.0% 수준으로 대폭 떨어지고, 민간소비도 자산소득의 정체와 실질 임금소득 증가율의 안정에 힘입어 올해 9.5%에서 내년에는 7.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KDI가 발표한 분기별 경제전망에 의하면 내년의 경제성장은 엔고현상의 진정과 국내 경기의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하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건설투자의 경우는 6.5%, 그리고 설비투자는 8.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한일은행에서 전망한 자료도 내년의 연간 경제성장율을 8.2% 수준으로 보아 금년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건설투자의 증가율은 오히려 금년보다 높아 1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4. 1995년 하반기 및 1996년 레미콘수요 전망

표4 및 표5는 1986.1월~1995.6월의 레미콘 소비량의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에 의해 1995년 7월 이후의 레미콘수요량을 예측한 결과이다. 예측결과에 의하면 1995년 하반기의 레미콘수요는 5천789만³에 달하여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간으로 볼 때는 1억 1천265만³를

표3. 한국경제 전망치 (자료: 한일경제연구소)

구 분	94			95			96 (e)
	상반기	하반기	년간	상반기	하반기(e)	년간(e)	년간
GDP성장률 (전년동기 %)	8.2	8.5	8.4	10.0	8.6	9.2	8.2
민간소비	7.2	7.7	7.4	8.8	8.5	8.6	8.8
고정투자	10.1	13.1	11.7	16.3	13.8	15.0	13.0
설비투자	18.7	27.6	23.3	26.4	19.9	23.0	15.0
건설투자	4.5	4.6	4.6	8.9	9.4	9.0	11.0
상품수출	11.7	17.1	14.6	25.2	18.5	22.0	15.0
상품수입	18.1	25.6	22.0	26.0	22.0	24.0	16.0
경상수지(억달러)	-25.8	-19.5	-45.3	-57.3	-30.7	-88	-60
무역수지	-16.4	-15.1	-31.5	-39.3	-17.1	-57	-40
수출(통관)	437.1	523.0	960.1	577.8	650	1228	1500
수입(통관)	473.6	549.9	1023.5	650.2	629	1343	1600
소비자물가 (전년동기 %)	6.1	6.4	6.2	4.8	5.0	4.9	4.0
생산자 물가	2.2	3.3	2.7	5.0	5.4	5.2	4.5
회사채수익율 (기말 %)	12.40	14.22	14.22	14.7	13.2	13.2	12.0
총통화(M2) (평잔 %)	15.8	17.6	17.6	16.0	15.0	15.0	14.0

표4. 1995년 지역별 레미콘출하 전망

(단위: 천m³, %)

지역 기간	전 국	서 울 경 인	강 원	충 북	대 전 충 남	전 북	광 주 전 남	대 구 경 북	부 산 경 남	제 주
1/4	20273 12.9	7308 0.0	512 -5.9	749 7.7	1647 20.7	858 20.2	2084 35.8	2876 28.1	3948 19.4	291 18.0
2/4	34504 9.9	-13265 6.3	1817 6.5	1759 9.0	3221 8.3	1727 16.5	2880 20.3	4385 15.1	4998 10.5	452 6.6
상반기	54777 11.0	20573 4.0	2329 3.5	2508 8.6	4868 12.2	2585 17.7	4964 26.4	7261 19.9	8946 14.2	743 10.8
3/4	27191 2.9	9328 -5.4	1331 1.6	1263 9.5	2589 5.2	1361 18.1	2585 16.5	3837 7.2	4470 4.9	428 -1.5
4/4	30682 -0.4	11234 -1.6	1398 0.6	1383 6.2	2841 -2.3	1416 4.5	2868 0.9	4223 1.9	4865 -2.2	453 -2.9
하반기	57873 1.1	20562 -3.3	2729 1.1	2646 7.8	5430 1.1	2777 10.7	5453 7.8	8060 4.4	9335 1.0	881 -2.2
년 간	112650 5.7	41135 0.2	5058 2.2	5154 8.2	10298 6.1	5362 14.0	10417 15.9	15321 11.2	18281 7.1	1624 3.3

* 1. 상반기는 실적치임 * 2.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표5. 1996년 지역별 레미콘출하 전망

(단위:천m³, %)

지역 기간	전 국	서 울 경 인	강 원	충 북	대 전 충 남	전 북	광 주 전 남	대 구 경 북	부 산 경 남	제 주
1/4	23181 14.3	8619 17.9	594 16.1	868 15.9	1834 11.4	1035 20.5	2384 14.4	3248 12.9	4277 8.3	322 10.4
2/4	34333 -0.5	12790 -3.6	1749 -3.8	1752 -0.4	3223 0.1	1793 3.9	2990 3.8	4524 3.2	5062 1.3	450 -0.3
상반기	57514 5.0	21409 4.1	2343 0.6	2620 4.5	5057 3.9	2828 9.4	5374 8.3	7772 7.0	9339 4.4	772 3.9
3/4	30466 12.0	11111 19.1	1383 3.9	1370 8.5	2765 6.8	1532 12.5	2832 9.6	4229 10.2	4788 7.1	456 6.8
4/4	32616 6.3	11775 4.8	1449 3.6	1487 7.5	3012 6.0	1521 7.4	3110 8.4	4606 9.1	5175 6.4	481 6.1
하반기	63082 9.0	22886 11.3	2832 3.8	2857 8.0	5777 6.4	3053 9.9	5942 9.0	8835 9.6	9963 6.7	937 6.4
년 간	120596 7.1	44295 7.7	5175 2.3	5477 6.3	10834 5.2	5881 9.7	11316 8.6	16607 8.4	19302 5.6	1709 5.2

* 1.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기록하여 전년대비 5.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995년 하반기의 레미콘수요증가율이 다소 주춤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아파트미분양이 확산되면서 신규물량이 축소되고 있으며, 부동산 실명제 등으로 택지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6년도의 레미콘수요는 1억 2천60만 m³가 출하되어 1995년대비 7%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에도 안정된 레미콘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한 이유로는

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숙원사업 및 총선에 따른 지역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인지역은 1995에는 0.2%의 소폭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나 1996년도에는 7.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방에서도 대부분 5~10%의 안정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하반기별로는 하반기의 수요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